

강론 ...

아름다운 길



김 봉 술 신부
(신태인 성당 주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젊음과 신앙의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편리한 시설의 시스템, 잘 정돈된 정원, 친절하신 봉사자들,

작은 성당이 참 인상 깊게 기억된다.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와 떠나보내는 가족과 사람들의 인사 장면 사진이 현관에 걸려 있었다. 파견 미사를 봉헌한 후, 서로에게 주님의 축복을 청원하는 자리인 듯 싶다. 감동적인 장면은 가족과 사람들이 떠나는 선교사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다.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들이 잠들어 계시는 묘소를 걸으니, 로마서 10장 말씀이 따뜻하게 다가온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준 장면은 자신의 몸까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백발의 사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 묵주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성무일도를 바치고 계시는 모습이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선교사가 죽음을 평화롭게 준비하며 거룩한 기도를 바치는 모습에서 갯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대림시기를 산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살아야 한다. 나 자신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살아야 할 선교사임을 명심하자.

“아름다운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에서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웃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헌신하고 기도하며, 십자가와 함께 생애를 다하여, 끝까지 끝까지 가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운 길, 대림시기를 충실하게 살기로 약속 하며 다짐한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숲머리 생각



식사 전 기도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병기
(프란치스코)

선택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았다.”
(느헤 11)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바란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나 이로운 것을 택한다. 다만 세상이 풍요롭지 못하여 모든 이에게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투거나 공평하게 나누



하는 그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성전에 가까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원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느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의 열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

을 칭찬하였다. 열악한 쪽은 문이 열려 있어도 찾는 이가 없으니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안중에는 이미 벗어나 있다.

예루살렘이 재건된 후 귀향민들이 자리를 잡을 때가 돌아왔다. 각자의 영지를 받아 지방에 흩어질 것이지만 성도에 살 주민들도 필요하였다. 열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야 한다. 도성을 지키고 성전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더 좋을 듯 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방에 살기를 더 원했다. 예루살렘은 농토가 적고 삶의 터전으로서는 지방보다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늘의 뜻에 맡긴 제비뽑기이니 결과에 따를 뿐이지만 희비의 교차는 있었다. 하지만 그중에는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피하고 싶은 그곳을 스스로 칭

현실적인 손해로 믿음을 산 이들의 행보는 다르다. 그들의 선택은 세상적인 길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택하였다. 전적인 희생은 아닐지라도 하늘의 보화를 위해 세상의 밭을 파는 지혜를 그들은 발휘하였다. 믿음을 위한 진일보에는 언제나 세상적 포기가 동반한다. 이를 실천한 사람들은 그 포기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느님을 향해 발길을 내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보화인 믿음은 귀한 것이지만 사람이 다른 것에 집착하므로 언제나 세상 한켠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칭찬을 할 때조차도 그 귀함을 모르니 결국 수저가 국물 맛을 모름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요)

기다림이 주는 희망

우리에게 기다림이 주는 고통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지금 음속이니 나노기술이니 하는 다양하고 안락한 첨단문명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중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과 피곤, 약해져가는 믿음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이제는 자신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진정한 나를 만나 볼 때이다. 진정한 변화나 휴식은 밖에서가 아닌 내 안에서 또는 하는 일 안에서 충분히 머무는 것에서 이뤄야 하며 그것이 그분 안에서 나와 내 이웃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나는 친구의 마라톤 참가 후 보내온 메일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마라톤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즐기며 고통의 강도를 높였던 시간들! 평소엔 그 고통을 나누고 정작 축제날엔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마라톤대회는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평소보다 멀리 뛰는 것이 아니라 늘 즐기던 고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장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은총이다. 욥이나 바오로 사도에게 기다림은 희망으로 건너가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우리의 일상은 피해서는 안 될 크고 작은 기쁨과 고통으로 뒤섞여 있지만 그 안에 충분히 머

무를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그리고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한 충분한 힘의 원동력으로 구원의 빛이 될 것이다.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오는 고통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말이다. 기다림은 세상 변화에 맞춰가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실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앞에서 희망은 늘 더디 오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주는 여유가 있음을 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요한 3,9) 우리 가슴에 받은 불씨가 환하게 타오르기를 희망해 본다.

김유경(루피나) · 그림 황의성(세례자 요한)

입당송 시편 25(24),1-3

주님, 주님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주 하느님, 주님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예레 33,14-16

화답송 시편 25(24),4-5,8-9,10과 14 (◎ 1)

◎ 주님, 주님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 환호송 시편 85(84),8

◎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자애를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시편 85(84),13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어 주리라.

환경과 생태를 향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

천주교 전주교구 환경사목이라는 이름은 교구 내에서는 왠지 낯선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숨은 활동들을 보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환경사목에서는 일본에서 두드러진 환경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화폐운동을 도입해서 “덤”이라는 이름으로 녹색화폐를 만들어 몇몇 본당들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2007년도부터는 신청하는 본당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일학교의 ‘은총시장’과 비슷하며, 본당 내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 형제자매가 성직자나 수도자로 부터 상으로 받은 녹색화폐 “덤”을 교구청 매장 “온가”

에 가지고 오면 환경 세제 EM, 환경 수세미, 환경 컵, 환경 장바구니 등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천주교회 내의 언론과 지역사회 내의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간소화 운동’은 시각적인 환경오염원인 간판들을 간소화하게 하는 운동으로, 프랑스의 간판과 주소문화 등에서 착안한 내용입니다. ‘밤을 밤으로’는 퇴근 후 일찍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자, 밤에 사용되는 많은 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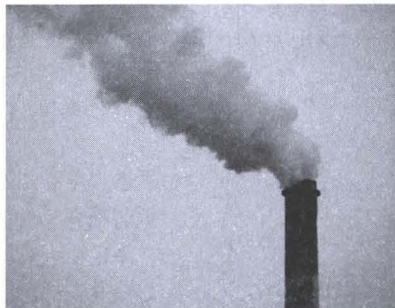
지들을 절약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반찬 한 가지 줄이기 운동’은 음식과 인정의 고장이기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만든 운동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로드 킬(도로 위의 야생동물의 죽음)’의 방지를 위해 석산 및 도로의 난개발을 지적하고, 부루셀라와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축매몰이 지하수 및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등을 분리수거하게끔 촉구하고, 하천 및 새만금지역 수질오염에 관한 원인분석과

본당 내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 형제자매가 성직자나 수도자로부터 상으로 받은 녹색화폐 “덤”을 교구청 매장 “온가”에 가지고 오면 환경 세제 EM, 환경 수세미, 환경 컵, 환경 장바구니 등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안책 마련을 위해 천주교 환경연대, 지역 환경연대 등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천주교 전주교구 환경사목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을 위한 월례미사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치명자산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하고 있고, 미사 전후로 성서와 영성에 바탕을 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사목 박동진 신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랑’ “내겐 완벽한 당신”

(To me, You are Perfect)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증오와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다.”는 대사로 시작되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Love Actually, 2003년)>는 서로 다른 갈등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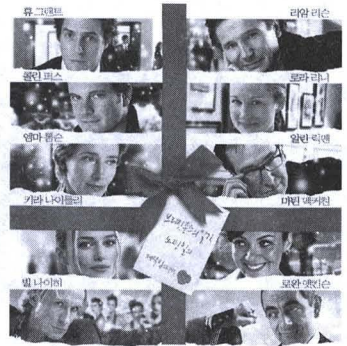
2003년 성탄절을 앞두고 개봉된 이 영화는 행복에 관한 그리고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 모음집이다. 젊은 남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린 십대의 풋사랑-수상과 비서의 사랑, 사랑의 슬픔을 겪은 남자의 말 못하는 사랑, 아이의 사랑, 희망을 꿈꾸는 사랑, 감추어진 사랑 등 다양한 사랑-에까지 모두 이 세상에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하고도 소박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묘미는 사랑에 관한 각자 다른 독립된 에피소드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나중에 가서는 ‘크리스마스’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 안에 들어가는 영화이다.

어떻게 보면 산만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이 마음에 잔잔한 느낌과 감동을 선사해주며 또한 복잡하지 않게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매력이다. 결말에 가서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하나로 뭉치고, 이러한 행복한 감동은 크리스마스를 향해 나아가고, 어느새 영화를 보다보면 그 결말에 이르러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 영화는 크리스마스라는 사랑의 날을 두고 만들어가는 에피소드들의 각자 나름의 사랑 표현 방식을 아주 유쾌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사랑은 애절하기도 하고 누구의 사랑은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이의 사랑은 유치하기도 하다. 하지만 누구의 사랑표현방식이든 우리는 모두 수긍하게 된다. ‘저럴 수 있지, 아무렴…….’ 하듯끔 한다. 잊을 수 없

고, 후회스럽고, 때로 황홀하고 자극적이기도 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랑, 때로는 늘 곁에 있어서 반갑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설명할 수도 없으면서도 세상에 하나 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쉬운 우리네 사랑의 감정을 크리스마스를 통해 다시 한 번 소중함을 찾게 해주는 영화이다. 영화 제목은 원래 ‘Love Is All Around(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란 노래에서 가져왔는데, 이 노래는 극중 한물간 록스타인 ‘빌리 맥’에 의해 ‘Christmas Is All Around(크리스마스는 어디에나 있다)’로 리메이크 되어 불려짐으로써 크리스마스는 곧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보듬고 품어야 할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것’임을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선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사랑하기에,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임을 소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림시기를 거치며 성탄을 기다리는 선상에서 이 영화를 보면 마음속 가득히 행복을 전해주는 크리스마스를 선물로 받을 것이란 생각으로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



영문명 줄리는 이 시대 최고의 리브스톰리!

러브액츄얼리

loveactually



“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다

익산시의 외곽지대에 위치한 팔봉성당. 지난 11월 초 본당 공동체는 붉은 벽돌로 지은 아름답고 기품 있는 새 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이날 봉헌식은 하느님을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본당 신부로 처음 발령 받아 열과 성을 다한 권순호 신부와 신자들은 이병호 주교의 주례사 말씀처럼 황무지와 다름없는 곳에서 성전 신축이라는 기적을 이루어 낸 주인공들이다. 주일미사 참례자가 80여명, 게다가 예수를 넘긴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팔봉 성당의 성전 신축은 우리의 눈에는 놀랍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오늘의 영광은 오직 “할 수 있다”는 믿음하나로 공동체를 다독이며 모든 어려움을 감내한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권순호 주임신부.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권신부의 열의가 신자들을 성전 신축으로 결집시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낳게 한 것이다.

하느님은 이런 권 신부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셨다. 누가 보아도 비만한 체중의 소유자였던 권 신부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몸무게가 무려 25kg이나 줄어서 이제는 보기 좋은 ‘몸짱’ 신부가 된 것이다.

◆ 팔봉 공동체의 어제와 오늘

팔봉성당은 지난 1958년 창인동성당 관할공소로 시작하여 5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84년 영동동 성당 관할공소, 94년 어양동 성당 관할공소를 거쳐 97년 팔봉선교본당으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대희년인 2000년 정식 본당으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익산시 팔봉동 323-8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자 대부분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농현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지금은 홀몸 어르신들이 70여명에 이를 정도로 갈수록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세대수 130세대, 신자수 400여명, 6개 구역의 작은 공동체이다. 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동네잔치를 벌일 정도로 어린이들이 귀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린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교무금 납입 세대가 80여 세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이 홀몸 어르신들 세대라고 하니 팔봉공동체의 새 성전 봉헌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 성전 건축의 기나긴 꿈

지난 2002년 팔봉 성당에 부임한 권 신부는 목조와 흙으로 지어진 허름한 건물에서 밤이면 천정을 제 집처럼 돌아다니는 생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한다. 재래식 화장실이며 겨울에는 발이 시릴 정도의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권 신부는 후배사제에게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그만 조립식 건물을 계획했던 것이 지금의 새 성전까지 연결된 시금석이 되었다. 전임 김훈신부 역시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40여년의 긴 공소생활이 몸에 밴 신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였고 “이대로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기에 계획은 무산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첫 본

먹으로 일군 성전 신축 기적

당 사제의 열정을 간직한 권 신부는 신자들에게 성전신축의 청사진을 과감히 선포하였다. 그때 당시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던 신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발 벗고 나서는 사제의 헌신적인 희생 앞에 신자들의 마음은 녹아들었고 공동체가 함께 성전건축을 향해 매진 할 수 있었다.

◆ 사제를 감동시킨 멋쟁이 신자들

성전을 짓기로 하고 얼마 후 할머니 신자가 신부님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장판 밑에 한 장 한 장 모아놓았던, 그래서 곰팡이 핀 지폐가 가득 들어있었다. 또한 매일 미사에 참여하던 신자가 안보여 알아보니 성전기금을 마련하느라 일당을 받고 노동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본당 신부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실어 주었다. 본당 신부를 믿고 따라준 교우들이 참으로 멋쟁이라고 성전 봉헌식에서 권 신부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봉헌식에서는 또한 권 순호 신부와 팔봉 공동체를 바라보는 익산지구 사제들의 따뜻한 눈길이 있었다. 작년에 팔봉 성당 신축기금마련 바자회에 익산 남 지구 각 본당에서는 음식코너 두 개씩을 맡아 봉사해 주었다. 익산지구 전 성당의 바자회라 할 정도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었고 특히 마동성당의 적극적인 협조는 큰 격려가 되었다. 금년 6월에 구 어양동 성당을 빌려서 개최한 두 번째의 바자회를 통해서도 전교구민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성전건축의 꿈을 앞당기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느님이 함께하시는 일임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름다운 봉사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지만 맛깔스러운 음식 솜씨를 갖고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이 있다. 본당에서 맛깔스러운 음식 솜씨로 소문난 김점순(마리아), 박양수(스콜라 스티카), 윤희숙(아녜스) 자매는 성전신축기간 내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식사를 도맡았다. 시설부장 정시훈(라파엘)형제는 주방기구 설치부터 가스배관에 이르기까지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를 보여주었고 여성부장 박순자(수산나)자매를 비롯한 여성분과 자매들은 절인 배추와 젓갈을 팔아 성전 신축 기금에 보탬다. 전 사목회장 소연영(모이세)형제는 3년째 배추농사를 짓는 데에 헌신을 다 하며 수익금을 봉헌하였다. 형제는 배추농사를 지어 성전건축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우연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겠냐며 선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권 신부는 성전 신축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다. 아침은 대체로 굵고 점심은 대충, 저녁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식으로 식복사비를 성전기금으로 봉헌한 권신부의 체중이 25kg 감량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맨몸, 맨주먹으로 시작한 성전 신축이 이루어지기까지 공동체의 기도는 큰 영적 무기가 됐다.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운동을 수차례 펼치며 성전 신축에 매진해온 신자들은 이제 새 성전을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가꾸어 가며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행한 것은 본당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젊은이들도 나오고 신자들도 늘어 간다는 것. 권 신부는 “앞으로 우리의 할일은 공동체가 내적 성전을 짓는 일”이라며 “그동안 외적인 성전을 짓느라 소홀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새로이 가꾸어서 내적 복음화를 이뤄 이 성전을 꽉 채우는 것이 팔봉 본당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였다. 아직 성전 비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본당은 이 모든 것도 하느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채워주실 것이라고 소박한 바람을 펼친다.

도움 주실 분: 신협 07001-13-031291 예금주: 권순호 신부

취재: 신현숙 · 오안라 기자, 사진: 김영수 기자



● 금암동 성당 대림준비 특강

금암동 성당(주임=김요안 신부)은 지난 11월 24일(금) 조 정오 총대리신부를 초청하여 대림 준비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총대리 신부는 “하느님과 코드가 맞는 삶이란 신·망·애의 삶이다”며 “신앙과 희망의 척도는 사랑으로, 우리는 신앙과 희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이웃과도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수도 기자

● 군산 나운동·지곡동 성당 연합 친선경기

나운동 성당(주임=안철문 신부)의 성우회, 성지회 회원들과 지곡동 성당(주임=김혁태 신부)의 요셉회, 반석회 회원들은 지난 11월 25일(토) 오후 2시부터 군산 중앙여고 운동장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다. 두 성당의 35세에서 55세 사이의 형제들로 본당의 굵은 일을 도맡아하는 이들은 배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며 형제들 간의 친목과 일치를 다졌다. 나운동 성당은 2002년 지곡동 성당을 분가시킨 모 본당으로 그간 두 성당은 소규모로 친선경기를 하며 우애를 다져왔다. 이오안라 기자

● 서신동 성당 독거노인 연탄 전달



서신동 성당(주임=전대복 신부) 소속 봉사단체 바오로회(회장=이춘우)가 11월 26일(주일)에 관내 영세민 혜택을 못 받는 신자들(독거노인)에 연탄을 전달하였다.

총 8가구에 300여 장씩 총 2,500장을 구입하여 험한 비탈길에서 땀을 흘리면서 배달을 마친 바오로회원들은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게 될 독거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며 겸손해 하였다. 이유장근 기자

● 장계 성당 김장용 배추 작황부진 판매 애로

장계 성당(주임=엄기봉 신부)이 재배한 김장용 배추가 작황 부진으로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다.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마련을 위해 1만 2,000포기의 김장용 배추를 심었으나 가을 가뭄으로 속이 덜차고 노란 잎이 지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중 상품 가치가 있는 1,000여포기는 지난달 26일 교중미사 후 수확, 절임배추 만들어 예약된 광주 가톨릭신학대에 전량 판매하기로 했다. 이우연대 기자

● 창안동 성당 리수현 신부 사제서품 40주년 기념미사



창안동 성당(주임=리수현 신부)은 지난 11월 26일(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제서품 40주년을 맞은 리수현(보나벤투라) 본당 신부님의 기념 미사와 축하식이 있었다.

1966년 12월 16일 하느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 부르심을 충실히 살아온 40년 사제의 길에 전 신자의 정성을 모아 영적 꽃다발과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기념미사와 축하행사, 축하공연, 나눔 잔치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와 축하를 드렸다. 조은아 기자

● 서일 성당 레지오 단원 자체교육

서일 성당(주임=김진룡 신부)은 지난 11월 22일(수) 오후 7시30분부터 평화의 모후 꾸리아(단장=이승복) 17개 뿌레시움 단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단장 강상근 형제를 초빙하여 ‘레지오 단원의 자세’란 주제로 레지오 단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김대식 기자

교통 사고보상상담
손해사정인

황 선 주 (프란치스코)

☎(063)236-1040
H·P 011-659-4985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약학박사: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

제주 성이시돌 피정
(미사, 말씀, 자연피정, 종교해설사)

일시: 1월 6일~9일, 14일~17일,
26일~29일

장소: 제주 성이시돌 목장내

신청: 02-773-1455

지도신부: 임피제 파트리치오 신부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필리핀 등〉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에듀케어 6기 영어캠프 모집

Fr.MARK 신부님과 함께하는
뉴질랜드 영어캠프

기간: 12월 22일~ 1월 20일

대상: 초, 중, 고등학생

문의: 은이성(이사악) 011-9476-2421

WWW.Club.cyworld.com/educare-si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전신), C-T촬영(전신)
X-Ray 특수촬영 및 투시
칼라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

원장: 방사선과 전문의 박인숙(아나타시아)

원장: 방사선과 전문의 정진영

☎(063)278-1312~3

유* 사 랑 외 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16년 역사 수맥들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 이덕자 자매 제1회 천주교 환경상 수상



지난 11월 22일(수) 전주교구 환경사목회장이자 쌍백합 편집위원이며 삼천동 성당 신자인 이덕자(안젤라) 자매가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제정한 제1회 천주교 환경상을 수상하였다. 이덕자 자매는 16년간 농촌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 왔고, 최근에는 치명자산 야생화단지, 녹색화폐 “땀”, 간판 간소화운동, 반찬 한 가지 줄이기 운동, 밤을 밤으로 운동 등을 추진 중이며, EM 활용, 환경수세미, 환경 컵, 환경 장바구니, 환경생리대를 보급하고 있다. |홍보국 정례

● 오룡동 성당 가두선교 활동 전개

오룡동 성당(주임=이수현 신부)은 지난 11월 25일(토) 관할구역 3곳에서 가두선교 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에서 발행한 ‘천주교를 알려 드립니다.’라는 선교책자와 초대장 2,000부를 배부했다. 본당 신자가 모두 참여하도록하기 위해 선교책자와 초대장을 두 부씩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관할구역 3곳에서 직접 배부했다. |길용운 기자

● 송학동 성당 작은사랑 나눔잔치

송학동 성당(주임=박인근 신부)은 지난 11월 26일(주일) 공식미사 후 작은 사랑의 나눔 잔치를 벌였다. 나눔잔치는 올해 초부터 매월 넷째 주 공식미사 후, 각 단계별 주관으로 조출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점심을 준비하여 나누어 먹으며 신자들에게 소속감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자는 취지아래 실시되어 왔다. |조은아 기자

● 둔율동 성당 성경 필사 봉헌 서약식

둔율동 성당(주임=김교동 신부)은 본당 설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월부터 새로 번역된 새 성경을 73가정이 나누어 필사하면서 말씀안에서 하나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11월 26일 성서주간을 시작하면서 한권으로 완성된 새 성경을 본당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준구 사목회장이 봉헌하고 전신자 선서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소중히 간직하고 날마다 읽으며, 하느님의 말씀에 힘과 지혜를 얻어 이웃에게 전하기로 서약하였다. |홍보국 정례

● 신태인 성당 본당의 날 행사 및 추수감사 미사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신부)은 지난 11월 26일(주일) 본당의 날 및 추수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마친 후 성당 아래 잔디밭에서 숯불구이 돼지고기와 함께 점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우림성당 김진화 신부가 참석하였다. 오후에는 친교 한마당,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선숙 기자

● 동산동 성당 추수감사 한마당 잔치

동산동 성당(주임=송년홍신부)은 지난 11월 26일(주일) ‘동산동 성당 추수 감사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성경 안치식을 시작으로 아미고의 집 어린이들의 스페인 노래 공연, 11구역 신자들의 잘되는 소공동체와 잘 안되는 소공동체를 재연한 쿡트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관영 기자

● 군산 나운 2동 성당 사목회 연수회

군산 나운2동 성당(주임=이덕근 신부)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복음의 선포자’라는 주제로 사목회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회는 내년 본당 공동체 사목 방향에 대한 주임 신부의 강의와 기도 시간, 분과별 사업 계획 및 토의,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신현숙 기자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APT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업체
토털디자인 **信**
류월준(토마스)
문의 : 224-4865, 011-653-6032
* 인후동 워브, 어울림, 한신휴
입주교우 특별 우대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약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라)
- 밤 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재(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엠마오하우스 펜션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도 관광오시는 신지여러분의 여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차량 및 호텔, 펜션, 민박)
문의 :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 좌순옥 (가밀라)/고성영(영주 바오로)

각종 김장용 젓갈 산지직송
서해젓집
염점례(리디아)
위치 : 삼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

대정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 · 변비 · 유방클리닉
전문의 최성양(루가)
전문의 안해선(사도환)
전문의 이철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젬인아트
전진아(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교구장 일정

- **참사회 / 대담대상자 사정회의**
12월 5일(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 **해성학원 이사회**
12월 6일(수) 오전 10시
- **극빈자 가정방문**
12월 7일(목)
- **쌍치공소 설립 10주년 미사**
12월 8일(금) 오전 10시
- **도통동 성당 축성미사**
12월 8일(금) 오후 3시
- **F·B성서모임 전국임원단 성서피정**
12월 9일(토) 오후 4시 오전
- **견진**
12월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나바위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 성직자 워킹 월레미사**
12월 4일(월) 오전 11시
- **재경 사제양성후원회 월레미사**
12월 4일(월) 오후 2시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레미사**
12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참사회**
12월 5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 **성가복지 이사회**
12월 5일(화) 오후 2시
- **대담대상자 사정회의**
12월 5일(화) 오후 3시 센터
- **해성학원 이사회**
12월 6일(수) 오전 10시 교구청
- **예비신학생 월모임**
12월 10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윤호관
- **서전주 하나회 미사**
12월 10일(주일) 오후 2시 삼천동
- **주 5일제 휴무자와 타지학생, 주일 직장 근무자를 위한 미사**
매 주일 밤 9시 서학동
- **12월 흥보국 좋은영화**
12월 6일(수) 오후 2시 센터
제목 : 러브 액츄얼리 / 134번

교육 · 피정 · 연수

- **천호피정**
12월 7일(목) 오전 10시, 9일(토)~10일(주일)
- **선택 봉사자 피정 2차**
12월 9일(토)~10일(주일) 해월리
- **본당사회복지분과위원 및 빈첸시오회원 피정**
12월 10일(주일) 오전 10시 나바위 피정외집
주제 : 생명이신 하느님
대상 : 각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빈첸시오회원
피정비 : 5,000원 / 준비물 : 필기, 미사도구
문의 : 12월 5일 / 사회사목국284-5290
*전주지역은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시청 앞 민원실에서 버스1대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미리 신청 바람.
- **F.B 성서형제회 피정**
12월 9일(토) 오후 1시~6시
주제 : 땅끝안에서 기쁘게 사는길 F.B
강사 : 이병호 주교, 이원규 F.B 전국 회장
장소 : 우전 성당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현금(11/19~25) 최덕자 2,000,000

기타

- **2007년도 전주교구 가톨릭학당단원 모집 기간 및 대상** : 2007년 2월 4일까지
전주교구 가톨릭 신자 및 예비신자
오디션 : 2007년 2월 5일(월) 센터 연습실 20시
문의 : 011-638-5346 최만규
- **교구에서는 금상동(구 소리개재, 천주교 묘지)에 성당신축, 납골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중이며 2007년 1월부터 안치 가능합니다. 교우분들 우선분양(자생 1,2층)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현재 천주교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의 유족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신청장소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찬미예수님
 故최운필(페로니모)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례미사를 집전해 주신 주교님, 사제단, 수도자,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재홍(부친 및 가족일동) -

수도회 성소모임 안내

수도회 명	모임 일시	모임 장소	문 의
사랑의 씨튼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3-281-0441
성바오로딸수도회	첫째 (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딸 서원	063-252-3398
올리베라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3-244-0094
곤벤투알 프란치스코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복흥공소	063-653-8004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창인동 성당	063-858-4724
경로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243-1440
예수수도회(익산)	둘째 주일 오후 2시	익산 성모병원	010-7250-7049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군산 나운2동 성당 수녀원	063-467-9200
작은 예수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동산동 전주장애인공동체	063-212-158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셋째 (토) 오후 6시	가정방문실	016-634-5637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화산동 성당 수녀원	063-225-3675
전교 가보멜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서산동 성당 수녀원	063-274-9262
노를담 교육 수도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동산A1동 1303호	063-246-8376
예수 성심 시녀회 성소	셋째 주일 오후 2시	아중성당수녀원	063-244-6762
미리내 천주성상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674-1251
인보성체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3-284-3231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서울 길음동 본원	02-919-2754
까리따스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덕진 수녀원	063-272-5304
서울성가 소비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효자동 수녀원	063-223-382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3층 성소국	011-9852-9817
관상 · 착한목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가정의 집	011-9653-8805
성가정 카푸친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4시	동산동 아이고의 집	063-214-4041

최고의 시설 / 최강의 강사진
양평 대일 기숙학원
 예비고 1,2,3 및 예비 중3 / 재수 종합반
 교무부장 박경민(요한)
 총무부장 조선희(소시모)
 문의 : 031-773-4700 / 02-3432-5447

작은 예수수녀회 성소모임
 주제 :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
 일시 : 2006년 1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수녀회 본원
 문의 : 02-462-7970, 011-9939-7970

익산성모병원 가정간호사업실시
 만성질환자(중풍, 치매, 당뇨등), 퇴원 환자, 호스피스 환자를 가정방문하여 진료 및 검진, 치료, 투약을 합니다.
 담당자 : 박현옥 모니카 수녀
 문의 : 063-841-0716 010-7250-7049

교사 채용
 지원자격 : 유아교육 전공, 몬테소리교육 이수자
 2007년 졸업예정자, 경력자
 지원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 010-7332-2369
갯별유치원(교향성당부설)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택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좌장: 김기향

- 대림 판공지 "물동이" 세대별로 1부씩 배부(소공동체별 사무실에 비치)
※ 기타반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그리스도왕 가정 순회기도(가정용 대림초 판매합니다. 사무실)
-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한 성경 시편 쓰기" 급주: 126점~138장
- 오늘 ① 대림 제1주일(다해 시작) ② 꾸리아 ③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금주모임 ① 사목회 6일(수) 후 8시 ② 제대회 8일(금) 미사 후
- 3차 헌금: 김명화 10만, 최옥남 5만
- 제1차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다 바치기(아름다운 성전이 봉헌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970,030원
- 성전신축을 위한 가정 고리기도: 조광의 바드리시오, 오명숙 루시아 가정 / 이장원 파비아노, 장부인 빅토리아 가정
- 성전신축헌금: 익명, 이강용 각 500만, 김장준, 이정숙, 이양현(운봉) 각 100만, 정기옥 10만, 2차 헌금 621,300원
- 차주 ① 대림 특강 교중 미사 후 강사 - 김신자 말가리다
② 판공성사(인월) ③ 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1,028,960원 ■ 교무금: 3,150,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좌장: 김원태

- 성서읽기: 12월 첫째주간 - 시편 70장~77장
- 본당 50주년 묵주기도 봉헌: 급주 2,710만 계 406,414만
- 2007년도 매일미사 책 신청 하세요 - 성물방
- 병인의나눔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12월8일(금) 10시 미사 후
- 차주공소 미사: 실천공소(성탄판공)
- 성당청소: 12월9일(토)-다영1,2만
- 모임: 성모회-12월7일(목) 전10시
- 금주전례: 해설-김영애, 독서-김원태, 이명숙
봉헌-김동숙, 김순옥, 기도-강원석, 박정분
- 차주전례: 해설-서정분, 독서-장춘호 부부
봉헌-주순이, 김준임, 기도-김희석, 김은경
- 지난주 봉헌금: 520,500원 ■ 교무금: 636,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옥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좌장: 정영열
홈페이지: www.sccatholic.net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 수고하시겠습니까: 사목회장-정윤열, 감사-전성추 이준택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신광호
- 축! 쌍치공소 10주년 감사미사 12월8일(금) 10:30 주교님 집전
- 금주모임: 여성분과, 요셉회, 꾸리아-교중미사 후
- 차주모임: 안나회-교중미사 후
- 금주전례: 해설-오숙희, 독서-문정자 정윤열
- 차주전례: 해설-양혜숙, 독서-박미숙 제용모
- 청소: 급주-평화의 모후Pr., 차주-가난한 이들의 모후Pr.
- 차량봉사: 급주-오용호 정준일, 차주-이우철 김용옥
- 감사헌금: 신민호 익명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862,400원 ■ 교무금: 1,225,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6 수녀원: 626-1004 서목좌장: 양정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주님, 주님의 길을 제게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시편 25).
- 천 신자 피정: 12월 4일(월) ~ 8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 주제 - 우리시대의 영성, 참가비 - 5,000원, 주관 - 교구 M.B.W
※ 피정 중 미사시간: 화(5), 금(8) - 저녁 9시, 수(6), 목(7) - 새벽 6시
- 2006년도 교무금을 완납하시고, 2007년도 교무금을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안내 ① 청년회 - 오늘(일) 후 5시 ② 바오로회 - 9일(토) 후 7시
③ 구역(반)장 모임 - 5일(화) 전 10시 30분
④ 성심부녀회, 자모회 - 9일(토) 후 2시, 3시
- 성탄판공합동고백행사: 11일(월) 후 7시부터 ※ 많은 인도 바랍니다.
- 갈렐의 모후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10일(일) 교중미사 후
- 축 결혼: 오늘 12시, 신랑 - 박중춘, 신부 - 김영임
※ 9일(토) 후 1시, 신랑 - 하경진, 신부 - 강경은
-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총 신입액: 157,424,000원, 납입액: 102,914,000원
- 지난주 봉헌금: 2,038,600원 ■ 교무금: 1,729,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석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좌장: 김길용
연락처: 433-3177 유지원: 433-2293

- 대림 제1주일입니다.
- 성서통독 및 문제풀이에 참여하세요.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세요.
- 토요일 어린이 미사 후 유희학교 어머니 모임 "만나회"가 16일(토)에 있습니다.
- 소화유치원에서 월회를 모집합니다. 문의: 433-2293
- 12월 판공관계로 수, 금요일 미사시간이 9: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판공 ① 5일(화) 전10시 수향공소 ② 6일(수) 후12시 소도실
③ 7일(목) 전12시 거석, 봉암
- 모임 ① 6일(수) 안나회 총회, 아브라함회 ② 7일(목) 사목회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서목좌장: 변용석

-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178,999만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성서를 통독 합시다.
- 금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황일주, 신광일
- 차량봉사: 변용석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김진태, 박준향
- 차량봉사: 김옥기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좌장:

- 오늘은 만남주일이며 교무금, 성소후원금 봉헌의 날입니다.
- 공소미사: 강덕-차주 판공성사 후 ※ 후3시부터 면담 및 판공성사
- 판공성사시에는 본당, 공소미사 없습니다.
- 봉성체: 1일(금) 전10시 30분부터
- 사목회: 5일(화) 후7시
- 50주년 기념사업(소성당, 사무실, 화합실, 화장실 신축 및 개축)을 위한 기금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설립 50주년 기금: 문명숙(수선나) 10만원, 양하영(요아킴) 10만원, 서덕봉(바로로) 30만원, 이영철(스레파노) 10만원, 조덕래(발라바) 20만원, 양형길(요셉) 5만원, 황재환(안당) 30만원, 이기호(베다) 20만원, 익명 50만원 누계: 41,222,000원
- 감사헌금: 백인수(마리오) 10만원
- 차주전례: 해설-이원석, 독서-이태현 부부, 봉헌-임옥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628,300원 ■ 교무금: 700,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임기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좌장: 이상화

- 오늘은 대림1주일(다해시작)입니다
- 오늘은 삼고 신자 초대주일
- 예비신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12월4일~25일, 접수-사무실, 수녀원
- 사목회: 7일(목)저녁 미사 후
- 구역장 공소회장 모임: 오늘(3일) 주일미사 후 교육관
- 반모임: 8일(금) 저녁 중동, 북동, 월강, 복실 구역
- 다음주일 미사 후: 운전사도회모임
- 다음주일 전례봉사: 하모순, 김제일, 안옥선, 김종영, 심현천
- 그동안 배추 농사에 수고하신 교우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감사헌금: 최상정 7만원
- 지난주 봉헌금: 596,500원 ■ 교무금: 420,000원

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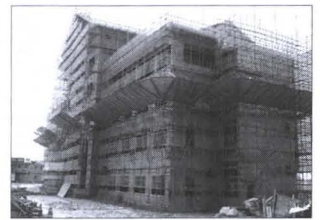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좌장: 박동표

-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첫주입니다.
- 연말 세무정산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회장님) 미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주모임: 사목회 수요일(6일) 저녁미사 후
- 성체강복: 7일(목) 저녁미사중
- 금주참석공소: 없음, 차주참석공소 - 번암
- 금주공소미사: 수분 하동
- 금주독서: 이지수, 강순이
- 차주독서: 정영순, 최선영
- 금주봉헌: 김호준, 최선영
- 차주봉헌: 장재주, 최인기
- 차량봉사: 급주 - 박충기, 차주 - 장요섭
- 지난주 봉헌금: 428,150원 ■ 교무금: 1,130,000원

- 12월(일)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이명서 베드로회
- 본과 및 제단체 2007년도 연합활동계획안 제출바랍니다.
- 10일(일) 혼례예식: 신랑 - 김기범(요한), 신부 - 양혜림 ※ 축하해주세요.
- 금주봉헌: 김용기 대건안드레아 부부
- 금주모임: 구동수 베드로 부부
- 성당청소 및 주일미사 전 안내 봉사: 성조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267,000원 ■ 교무금: 1,510,000원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11월 25일 현재)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옥봉, 둔율동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장수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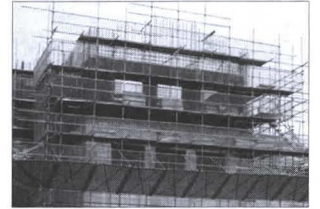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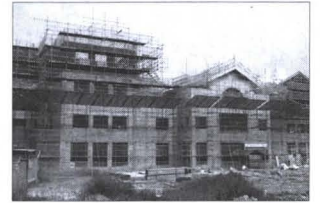
임실, 고창, 진안, 나바위, 고산, 인후동, 오수, 신태인, 여산, 소룡동, 신평, 중앙, 영등소리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무주, 오룡동, 쌍교동, 나운2동, 금암동, 서신동, 월명동, 복자, 노송동, 팔마, 소양, 신동, 숲정이, 함열, 덕진, 조촌동, 우림, 우전, 영등동, 순창, 시기동, 수류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용안, 대야, 솔내, 봉동, 나운동, 요촌, 용진, 효자동, 송천동, 용머리, 연지동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8,088,062	53.92%
사제단	1,000,000	1,114,309	111.43%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587,545	39.17%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10,011,724	55.62%

대림시기의 의미와 우리의 생활 자세

대림 시기는 예수성탄 대축일 전 4주간 동안이다. 4주간은 구약시대에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던 기간을 상징한다. 대림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으로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 탄생 기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을 해마다 경축하고 기념한다. 2천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써 인류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총은 개개인에게 이르고 있으니 마땅히 경축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이유가 '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깊이 반성하면서 성탄을 준비해야 한다.

영광스런 재림 고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하고, 미사 때마다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다. 희망의 기쁨 속에서 권능을 떨치며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오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착한 생활 속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현존하신다. 특히 성체로 주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더욱 친밀한 방법으로 오신다.

우리의 생활

우리는 대림시기에 우리 존재 전체가 주께 향하도록 기도와 선행과 극기를 하면서 성사의 의미를 다시 인식하고 주께서 우리 생활속에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